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정진하는 도량 · 부처님 말씀대로 신행 실천하는 도량

보광사보

열정과 욕망,
사랑과 갈망에서
슬픔도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법구경-

발행인 · 편집인: 주지 환암 심진 / 발행일: 불기 2560(2016)년 2월 4일 /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경기도 파주시 보광로 474번길 87
전화: (031)948-7700 FAX: 031-948-7702 / http://www.bokwangsa.net / 제작: 성신문화인쇄(02-468-0127~30)



입춘법문



“봄은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만 옵니다.”

동양에서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데, 그 24절기의 첫 시작이 입춘입니다. 입춘은 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봄기운, 생명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입춘은 혹독한 겨울의 기억, 음울하고 어두운 기운을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따뜻한 기운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만 옵니다. 겨울을 통과할 때 더 거룩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겨울이 길다고 해서 봄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긴 겨울과 고난, 모든 어려움은 나 자신을 오히려 한 층 더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을 기다리는 불자들은 지금 이 겨울을 통과해야 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지금 이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딱 죽고 싶어질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희망을 버리기보다는 겨울을 통과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설사 한 없이 복잡하고 어려울 일이 생겨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은 겨울을 통과하는 과정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해도 내 인생이고 합격하지 못해도 내 인생입니다. 그 현상을 잘 극복해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유유자적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묻지 마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후 된 일에 감사하고 안 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노력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마음입니다. 안된 것을 붙잡고 울고 속상해하면 그것 또한 바보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로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입춘의 유래와 의의

입춘의 의미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보통 양력 2월 4일경이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일 때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날부터 봄이라 하고, 입춘 전날을 철의 마지막이라는 '절분(節分)'이라 하며, 이날 밤을 '해넘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입춘은 음력으로는 선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선달에 거듭 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재봉춘(再逢春)'이라 합니다. 정월은 새해에 첫 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대체로 정월에 첫 번째로 드는 절기입니다.

입춘첩, 춘축, 입춘축, 입춘부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날 여러 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집니다. 그 중 하나가 각 가정에서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춘축(春祝)·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천장·문설주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붙입니다.

입춘축을 달리 춘축(春祝)·입춘서(立春書)·입춘방(立春榜)·춘방(春榜)이라고도 합니다. 입춘축은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붙이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여 써서 붙입니다. 입춘이 드는 시각에 맞추어 붙이면 좋다고 하여 밤중에 붙이기도 하지만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는 써 붙이지 않습니다.

입춘축을 쓰는 종이는 글자 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가로 15센티미터 내외, 세로 70센티미터 내외의 한지를 두 장 마련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한지를 마름모꼴로 세워 '용(龍) 자와 '호(虎) 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합니다.

입춘축은 대개 정해져 있으며 두루 쓰는 것은 다음과 같이 대구(對句)·대련(對聯)·단첩(單帖, 단구로 된 첩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춘축은 붙이는 곳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큰방 문 위의 벽, 마루의 양쪽 기둥, 부엌의 두 문짝, 곳간의 두 문짝, 외양간의 문짝에 붙이는 입춘축은 각기 다릅니다.

옛날 대궐에서는 입춘이 되면 내전 기둥과 난관에 문신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에 좋은 것을 뽑아 연잎과 연꽃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붙였는데, 이를 춘첩자(春帖子)라 하였습니다. 입춘날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로 벽사문(辟邪文)을 써서 대궐 안으로 올리면 대궐 안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이는데, 이를 입춘부(立春符)라 합니다.

보리뿌리점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 보리뿌리점(麥根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캐어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데, 보리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보아 뿌리가 많이 돌아나 있으면 풍년이 들고 적게 돌아나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여주, 인천에서는 입춘 때 보리뿌리를 캐어 보리의 중간뿌리(中根)가 다섯 뿌리 이상 내렸으면 풍년이 들고, 다섯 뿌리에 차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에서는 입춘 때 보리뿌리를 뽑아 살갓 뒤에 놓아두면 보리뿌리가 자라는데, 보리뿌리가 많이 나면 길하고 적게 나면 그해 보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는 입춘날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된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집안과 마룻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뒤 체를 얹어두었다가 몇 시간 뒤에 들어보면 어떤 곡식이 한 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곡식이 그해에 풍년들 곡식이라 합니다. 입춘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병이 없으며 생활이 안정되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입춘날에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나쁘면 '입춘치'라 합니다. '치'는 점미사로 보름·그믐·조금 또는 일진의 진사(辰巳)·술해(戌亥) 같은 것에 붙여 그 날 무렵에 날씨의 나빠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첫날인 입춘에 이러한 입춘치가 있는 것을 농사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삼재풀이

전남 구례에서는 입춘날 절에 가서 삼재(三災)풀이를 하는데, 삼재를 당한 사람의 속옷에 '삼재팔난(三災八難)'이라 쓰고 부처님 앞에 빌고 난 후 속옷을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입춘절식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는 이날 새알심을 넣지 않은 팔죽을 끓여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려 벽사(?邪)를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이날 보리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보리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여 보리밥을 해 먹으며, 전남 무안에서는 입춘이 일 년에 두 번 들면 소금 시세가 좋다고 합니다. 함남 북청에서는 이날 무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여 무를 먹고, 잡곡밥은 먹지 않고 흰쌀밥을 먹으며, 이날은 나이 먹는 날이라 해서 명태순대를 해 먹습니다. 함남 홍원에서는 이날 남자들이 명태를 통째로 써서 먹으면 등심이 난다고 해 먹습니다. 입춘날 입춘절식이라 하여 궁중에서는 오신반(五辛盤)을 수라상에 얹고, 민가에서는 세생채(細生菜)를 만들어 먹으며, 함경도에서는 민간에서 명태순대를 만들어 먹습니다.

입춘의 의의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리고, 닥쳐오는 일 년 동안 대길(大吉)·다경(多慶)하기를 기원하는 갖가지 의례를 베푸는 풍속이 옛날에는 있었으나, 근래에는 더러 입춘축만 붙이는 가정이 있을 뿐, 그 절일(節日)로서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呂氏春秋, 洙陽歲時記, 禮記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69~1981)
- 韓國歲時風俗研究 (任東權, 集文堂, 1985)
- 韓國의 歲時風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 韓國의 歲時風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 함경도의 민속 (전경옥,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탐라국립춘굿놀이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황경숙, 月印, 2000)

동지기도법회 봉행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을미년 마지막 달에 동지기도법회가 설 법전에서 있었습니다. 새해를 며칠 앞둔 이날 동지기도법회에 여러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법회를 마친 후 예부터 전해 내려온 팔죽도 함께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보광사 불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부디 지난 해 묵은 업을 모두 소멸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발원하옵니다.



성도재일 철야정진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설법전에서 여러 불자님들, 그리고 보광사 대중스님들과 함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를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철야정진을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9시 입재를 시작하여 먼저 주지스님께서 10시까지 지도해 주셨고, 그 다음 이어서 부주지스님께서 11시까지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주지스님에 이어 노전스님께서 12시까지 광명진언 주력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나서 성도재일인 새벽 1시 30분까지 총무스님께서 참선을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2시 30분까지 포교국장스님께서 석가모니 정근, 금강경 독송을 지도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3시 30분까지 부전스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이루어진 제설작업

을미년 마지막 날 2015년 12월 31일 아침에는 보광사 앞마당과 그 주변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이날 새벽예불을 마치고 아침공양 후 7시부터 주지스님 이하 여러 대중스님들과 보광사에서 일하시는 여러 대중들이 모두 나와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쌓인 눈을 보는 것은 아름답지만 행여나 보광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불편하실까 염려되어 보광사 대중들은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마친 덕분에 이후 보광사에서 눈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보광사 대중스님들과 일하시는 처사님과 보살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물단 활동

고온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념사진 한 컷 찍고, 마을 부녀회원들께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촌계장님과 무심단장님의 고온리 자매결연 협약식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우리 보광풍물단이 고온리 마을을 자주 찾아와서 함께 화합의 장이 오래도록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쪼록 보광풍물단과 고온리 어촌계가 앞으로 좋은 자매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자매결연식 행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 보 | 광 | 사 | 소 | 식 |

자비도량참회기도 봉행

3월 1일 ~ 15일 오전 10시 대웅전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 회향

2016년 2월 22일(음 :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불교대학 개강

■ 개강 : 2016년 3월 17일(음 : 2월 9일) 목요일 설법전

불교 기초교리강좌개강

■ 수요일 개강 :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일요일 개강 :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설법전

입춘기도법회 봉행

■ 입춘기도입재 :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입춘기도회향 :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설 합동차례 봉행

병신년 조상님들을 위한 설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음력 : 1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설법전

정초신중기도법회 봉행

■ 신중기도입재 :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신중기도회향 :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병신년 방생법회 봉행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보광사 정기법회

■ 일요일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신중3일기도 입재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설법전

■ 인등축원기도 : 매월 음력 보름 오전 10시 대웅전

■ 지장재일영가천도기도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전

■ 관음재일소원성취기도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원통전(관음전)

■ 다라니정진기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11시 설법전

산신존상 조성불사

산신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밝은 지혜의 인연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법요집 설판불사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문의 : 031-948-7700~1 (계좌번호 : 농협 215066-55-005378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보광사 신행단체 안내

보광사 거사회 보광사 거사회는 회장(혜인)을 중심으로 약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 교양대학 졸업생 등을 거사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거사회 정기법회가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 사찰안내, 공양간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는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보광사 여성 불자(보살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각종 법회와 행사, 경기북부음악예술제 등을 통해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합창단에 가입해 활동을 원하는 불자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포교지원단 군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창립된 단체로서, 인근 지역 군법당 및 부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회 주관 및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비나눔봉사단 나눔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매월 정기적으로 인근 요양원, 무료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교 기초교리강좌 안내

불교 기초교리강좌는 불교를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불교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사찰에 가야 하는지, 사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법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자로서 꼭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것 등을 배우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많은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광사보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보광사보」는 사증의 위임을 받아 거사회의 연간 사업으로 확정, 발간합니다. 따라서 거사회에서는 사보 발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 문 의 : 종신 최은환, 010-8917-0407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78-336467
(예금주 : 최은환)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벅셀

전화 : 010-8893-3067

행안 합장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치즈보스코

전화 : 010-8893-3067

행안 합장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종로떡집

전화 : 031-947-0064

삼광 강성모 합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